



한일불교문화교류단 나눔의집서 '참회'

“2차대전 중 한국 여성분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정말로 미안합니다. 과거사에 대해 참회합니다.”

일본 불교계 대표단이 5월 13일 과거사를 참회하는 내용을 새긴 기념비를 여주 신복사에 세우고, 종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 참회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할머니들은 이날 일본 스님들이 찾아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자 감동에 북받쳐 말을 잊지 못했다. 스님들은 할머니들과 입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 뒤,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박옥연(91) 할머니의 방을 찾아 건강을 기원했다.(사진 왼쪽) 이날 나눔의집 방문에는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후지다 류조 스님, 이사장 니시오카 니치유 스님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면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불서·불교용품 필요하세요?

‘헌불샵’ 14일 오픈... 클릭 한 번이면 OK

불교용품을 쉽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불교계 대표신문 ‘현대불교신문사’는 1STEP 인터넷 쇼핑몰 ‘헌불샵(www.HyunbulShop.com)’을 5월 14일 선보였다.

‘헌불샵’은 향로, 목탁 등 ‘불교용품 코너’와 불교도서 6000여종 등 ‘불교서적 코너’는 물론 뒤주, 도자기 등을 판매하는 ‘일반용품 코너’ 등을 갖춘 불교 토탈 쇼핑몰.

헌불샵은 주요 카테고리별로 정리된 상품들을 상품검색 기능 등을 통해 품목과 가격별로 편하게 검색하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쇼핑몰 이용 고객을 위해 회원 가입 후 상품 구입 시 1%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도록 하고 있다. 마일리지는 1000원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며, 3만원 이상 적립 시 배송비 무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카드 및 온라인 입금 등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하며, 제주도 및 일부 산간벽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든지 3일내로 배송된다.

‘헌불샵’은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연동돼 상품 구매와 더불어 불교관련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붓다뉴스’를 통해 각종 교계 소식과 해외 불교상품보기 등 다양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쇼핑몰 이용자들의 의견제안 수렴을 위한 1:1 문의 게시판도 마련했다.

헌불샵 OPEN으로 불자들의 신문화 활성화와 불교상품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02)2004-8200 노덕현 기자

법구경

깨달음은 이는 죽음과 고통을 능히 정복해 불멸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교육선지식’ 용봉 스님을 배운다

6월 5일 열반 18주기 추모제 시작으로 선양사업 활발

故 용봉 스님(1918~1991, 속명 이재복)은 태고종 대종사의 법계에 오른 선지식임은 물론 대전 보문학원을 설립한 근대 교육 선구자요, 문화가다.

관련기사 7면

지난해 불자들의 공분을 샀던 종교편향을 비롯해 불교계가 처한 난제에 대한 해답은 인재불사다. 용봉 스님은 1945년 해방 이후 어지러운 사회를 극복·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불교의 자비이념 실현과 불교이념에 입각한 인재양성을 중시한 불교 교육의 선각자다.

인재불사가 새삼 주목 받는 지금, 열반 18주기를 맞은 용봉 스님의 유훈 선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눈길을 끈다.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회장 송하섭)와 용봉문도회(회장 원법)는 6월 5일 2시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舊 대전시민회관)에서 추모제를 개최한다.

추모제는 추모전집 봉정식, 추모 학술대회, 추모전시회 순으로 봉행된다.

용봉 스님 추모전집은 스님의 설

법과 강의, 문학작품, 대장경강화 등을 수록했다. 전집은 △제1권 ‘빈 배엔 달빛만 가득하고’(불교강화 녹취집) △제2권 ‘보배는 그대 안에 있다’(대장경강화자료집1) △제3권 ‘미움도 사랑도 벗으라네’(대장경강화자료집2) △제4권 ‘말을 타면 말을 쉬어야지’(대장경강화자료집3) △제5권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가네’(대장경강화자료집4) △제6권 ‘부처 속에는 부처가 없네’(대장경강화자료집5) △제7권 ‘침묵 속의 끝없는 길이여’(문학집) △제8권 ‘아직도 그윽한 님의 향기’(추모, 유품집)의 전 8권으로 구성됐다.

용봉 스님의 만상좌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용봉 스님은 약관에 불문에 귀의해 학승으로 명성을 얻고, 세속을 떠나지 않으며 중생교회의 대승불교 정신을 몸소 실천한 분”이라며 “하화 중생의 보살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선택해 평생 중등 교육에 헌신한 선지식”이라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추

모를 통해 모든 비움으로 도로 찾아 감사에 봉안한 내력을 기록한 의미 있는 글”이라며 “‘감사대종반안기’는 용봉 대종사의 애국심 뿐만 아니라 대종사의 자제인 이동영 교수(우송대학교)가 감사 종각의 편액에 쓰인 글을 한자 한자 옮겨 적은 효심 어린 대작”이라 말했다.

송하섭 회장은 “이번 추모전집 간행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봉 대종사 선양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금당학술재단을 설립해 금당 선생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042)533-3909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추모전시회는 용봉문도회장 원법 스님(대전 보은정사, 태고종 원로의 원)의 작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용봉 스님의 법제자인 원법 스님은 용봉 스님의 문학작품집 <정사 녹초(靜思錄抄)>에 수록된 130여 편의 작품을 3년 여에 걸쳐 손수 서예로 표현했다.

원법 스님은 “용봉 대종사의 작품 중 ‘감사대종반안기’ 등은 일제가 감사 대종을 전횡물자로 쓰기 위해 강제 반출하려던 것을 대종사께서

탁발을 통해 모든 비움으로 도로 찾아 감사에 봉안한 내력을 기록한 의미 있는 글”이라며 “‘감사대종반안기’는 용봉 대종사의 애국심 뿐만 아니라 대종사의 자제인 이동영 교수(우송대학교)가 감사 종각의 편액에 쓰인 글을 한자 한자 옮겨 적은 효심 어린 대작”이라 말했다.

송하섭 회장은 “이번 추모전집 간행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봉 대종사 선양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금당학술재단을 설립해 금당 선생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042)533-3909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선지식을 찾아서 ▶12 일장 스님



인터뷰 ▶8 범각 스님



강의실 ▶23 오강남 교수

사회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학교 끝나고 어디 가니? 나는 공생청소년센터 간다! 우리 거기서 만나!”

불교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배 라오스. 순수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라오스에는 절대 빈곤에 기본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74%가 영양 부족으로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등록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기 위해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본지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라오스 싸이타니구 지역 3000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1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기적(우연!) 삼시세례와 방생법회를 운정대가 있는 운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안불교조계종 천년교람소속인 **운문사**

얼레피알 두리알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생전에수재와 함께하는 법보종찰 해인사의 제 4차 1029일 천도법회

현생의 고통이 전생 빛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생 빛을 갖고 현생에 지은 보시공덕으로 내생의 복밭을 가꾸는 참회와 축원 대법회.

- 입 재 : 2009년 6월 22일 오전 10시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 법회집전 : 세민 큰스님 (現 조계사 주지 스님 / 前, 해인사 주지스님) 이후 매 큰 49재매마다 세민 큰스님이 직접 집전하고 제법 선지식들의 법문과 해인사 200여 대종 스님들의 축원이 계속됩니다.
- 문의전화 : 055)934-3105, 3106 / 팩스 055)934-3107번 (해인사 종합접수실)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율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법비사라’ 왕은 명부를 체험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무려 5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불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해인사에서는 해인사 前주지스님이시자 現 서을 조계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는 세민 큰스님이 직접 집전하고 200여명 해인사 대종스님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생전예수재와 제4차 1029일 천도법회를 함께 봉행합니다.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예수재와 제4차 1029일 천도법회를 통해 전생 인연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율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차 1029일 천도법회에 동참하시는 신도님들께는 3차에 걸친 생전 예수재를 무료로 봉행해 드리며 법회 기간 내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2일!! 해인사가는 날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법보종찰 해인사만의 특별한 법회가 시작됩니다.

동참 계좌 농협 843174-51-009176(예금주 해인사)
지금 곧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善覺**